

# 대한양계협회소식



## 산란종계대표자회의 채란업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부회장과 산란계 농가들이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 감축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7월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모인 가운데 산란종계대표자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산란농가 대표들은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 감축 방안으로 산란종계 사육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회장 대표 측은 하반기 생산물량이 적어 감축이 큰 실효가 없다며 자율쿼터제 참여보다는 경제 주력 이상의 노계에 대한 도태 캠페인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강균 채란분과위원장은 앞으로 부회장에서도 농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육용원종계 실무자 2차 회의 4사업체 감축물량 협의 및 축산법령 보완 필요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용원종계 4사 실무자 2차 실무자회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58,533수 수입되면서 과잉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차 회의에서 동의한 원종계 적정수수 12만수에 대해 각 업체별로 배정물량 정도를 협의한 결과 134천수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 회의에서 감축물량에 대해 재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종축업등록농장에 한해 종계분양을 실시코자 협의한 바 있지만, 종축업(종축육성사)의 용어재정립 등 육성농장을 종축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축산법령 개정 등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취지는 종계품질향상과 쿼터조절의 의미를 갖고 종계장 등록 분양을 권장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 이준동 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면담 업계현안 전달 및 지원방안 모색 강구 요청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과 생산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적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본회 이준동 회장은 지난 18일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경북도지회 및 지부와 함께 업계현안의 해결방안을 위한 의견제시와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으로 농가의 실익구현의 장을 마련키 위해 이 자리를 가졌다. 경북에서는 이미 계란난좌보조사업과 소비홍보운동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김점훈 도지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축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축산물분뇨처리시설에 대해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준동 회장은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값싼 수입축산물이 밀려올 것에 대비해 경북에서 친환경축산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 경북의 양계산업에 적극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양계농가의 혜택마련에 힘쓸 뜻을 전했다.

## 시 감염 고양이 발견 보도자료 진실 규명 요청 충남대학교 항의방문

지난 4월 22일 김제 만경강에서 고양이 사체



를 발견한 충남대학교 교수팀은 사체를 충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7월 4일 검사에서 시의 심소견을 발표한 바 있다.

고양이에서 실제로 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시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검사가 늦어진 원인 규명과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한 가금관련단체는 8월 4일 직접 충남대를 항의 방문했다. 충남대학교 측은 금번 자체검사에서도 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검역원에 신고를 통해 시료를 전했으며 동 건과 관련해 충남대 특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동 건의 대처방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관련 협회의 의견을 취합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키로 했다.

## 전국채란인대회 추진위원회 산란계의무자조금사업 추진에 한 걸음

8월 29일에 개최될 2008년 전국채란인대회에 앞서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1차 추진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개최되었다.

‘위기에 처한 채란업 대응전략 토론회’로 대



전 유성구 소재 레전드호텔에서 전국 채란인 대회를 가질것을 협의했다. 농림수산물부 노수현 축산경영팀장을 초청해 채란업 발전방안 정책에 대한 발표와, △산란실용계 수급조절 방안 모색(안영기 동양연채란지부장) △산란계자조금 사업 추진 방안(이상호 부위원장) △계란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임현완 부위원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실용계 분양수수의 증가와 사육규모 확대로 장기간 불황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산란계외무자조금사업 당위성 추진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 채란분과위원회 채란인 대회 개최건 논의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개최됐다.

지난 25일 개최한 산란업계대표자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와 함께 채란업 불황타개를 위해 단체 급식처의 계란메뉴 확대요청 및 협조문서 발송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가 있었다. 한편, 산란계 자조금 거출관련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추진방안협의로 채란업 불황타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위기의 채란업 대응전략 토론회'를 오는 8월 29일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전국 채란인을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전시 유성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분과위원장, 부분과위원장, 지회·지부장 등이 한 자리에 가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일정과 계획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 육계분과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대상자 지정요청



8월 20일 천안 소재 식당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흥재)가 개최됐다.

지난 7월에 제기되었던 '육계 발표가격 운송비 인상분 반영' 안건에 대한 회의 결과에 의거, 8월 6일자로 조사하는 육계가격에 별도로 kg당 80원의 경비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더불어 '계약사육농가의 유류지원비 인상안'에 대해 분과위원의 동의에 따라 집행부는 빠른시일내에 계육협회측과 회의를 가져 협의할 뜻을 밝혔다. 한편, 본회에서는 자조금사업 시행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계육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육계무자조금사업 실시 의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 지회 · 지부 소식 》

**동양연채란지부  
단합대회 및 야유회 개최**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지역 회원들로 이루어진 양연채란지부(지부장 안영기)가 지난 8일 경기도 연천소재 동막골 유원지 자리바위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영기 지부장은 “사료가격과 유류가격이 상승하고, 난가가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채란업계가 하루빨리 회복국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사육수수조절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29일 개최될 예정에 있는 전국채란인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채란인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천강균 위원장은 “금년 안에 기필코 의무자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천강균 채란분과위원장, 오세를 경기채란지부연합회장, 김경호 연천군청 농

림축산과장, 지영식 동두천시청 농정팀장, 박세홍 한국양계농협 경제사무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포천채란지부  
하계 야유회 개최**



포천채란지부(지부장 김인배)는 지난 11일 포천시 소재 산정호수 명성가든에서 하계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100여명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오세를 경기채란지부연합회장, 서장원 포천시장,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이상용 영북농협조합장 등 관련 인사 및 포천시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해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포천시 축산단체협의회장직을 겸임하는 김인배 지부장은 “국내 산업의 기본이 되는 농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천시청내 축산과를 부활시켜 생산자들에게 보다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기 바란다.”며 “생산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결속력을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되어 지역 양계발전과 크게는 국내 양계산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날 포천시장은 김 지부장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축산과가 재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뜻을 밝혀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